

전남, 가뭄·물 부족 걱정 없앤다

도, 국비 1343억 투입 수리시설 175지구 대대적 개보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초점...신규 지구 76개 연내 사업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 극단적인 가뭄에 대비해 전남도가 도내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선다. 재해를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초점을 맞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9일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인 175지구에 국비 1343억원을 투입, 가뭄 극복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국비 규모는 전국 예산(6404억원)의 21%에 해당하며, 신규 지구도 전국 258지구 중 전남이 76지구(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수리

시설 개보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정밀 점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후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파손 또는 기능 저하로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나 효율성이 낮은 양·배수장 등을 보수·보강하는 수원공 83지구에 대해 653억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손되거나 물 손실이 많은 수로 재시공, 토사 퇴적된 흙수로를 구조물화하는 용·배수로 54지구에 대해 464억원을 배정했다.

또 토사 퇴적으로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 37지구에 대해 203억원, 낡고 기능이 저하된 배수장 성능 개선 1지구에 대해 2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신규 지구는 고흥 당두양수장, 함평 월야간선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76지구(총사업비 1468억원)가 선정돼 연내 세부 설계 및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계속사업 67지구와 준공 사업 32지구는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강하준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해예방과 가뭄 극복을 위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가 국비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서비스창출 속도 전남테크노파크, 모니터링·실증기반 구축 2차년도 워크숍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최근 부산에서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 사업은 전남·경남·부산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인이동체 서비스 시장 창출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순천대, 동아대, 경남도립거창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여해 초광역 연계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남도, 고흥군, 경남도,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 컨소시엄, 외부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불 내는 불법 소각 안돼요 전남도가 지난 14일 구례 산수유꽃 축제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전남도 동부청사 공무원, 시민법인 숲속의 전남 회원,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의용소방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농사 의자 '쪼그리' 보급 확대 전년비 2배 늘어난 4만개...관절통증·허리질환 예방

전남도가 농민들의 작업 편의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일명 '쪼그리'라고 부르는 농작업 편의 의자 4만 개를 지원한다. '쪼그리' 의자는 농업인들로부터 관절통증, 허리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효과가 높고 작업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개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영세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부

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가구당 최대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당 가격은 제품에 따라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이며 구입 비용의 90%를 보조 지원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농작업 능률 향상 차원에서 편의 의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응급의료협의체, 환자 이송·대응 협력 강화

24시간 비상 진료체계 유지 광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집중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논의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도청에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전남소

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기름로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이송토록 당부하고,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나주시 소재)와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광양시 소재)를 3월에 추가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심 국장은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27일까지 접수

도, 상근인력 5인 미만 대상

전남도가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재정과 경영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브랜드(CI·BI) 제작, 온라인 제품 광고, 누리집 제작, 소핑몰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여성이 대표자로 주 사업장을 전남에 두고 있는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인 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제품 디자인과 홍보·마케팅 방법 등 컨설팅 지원도 받게 된다.

전남도는 2011년부터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10여 기업에 1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업 홍보 등 지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늘면서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